

* 2021년 9월 5일 주일 오전예배

* 성경 : 잠 4:23

* 제목 : 네 마음을 지키라(기도와 마음) - (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들어가는 말]

샬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전 세계에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평안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의 끝,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도 ‘네 마음을 지켜라’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오순절 사건도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에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네 마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네 마음’은 계속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는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된 상태에서의 마음은 내 마음이 근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마음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마음이나가 참 중요합니다.

❖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 아버지와 주님과 나, 셋이 연합된 가운데에서 ‘내가’ 품을 마음 =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언제부터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젖 먹고 기어 다니고 밥도 먹고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언제부터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습

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쉬운 사건입니까, 어려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근본 자기 존재를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면 남에게 절대 빠지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1년 365일 철야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한복음 1장 12-14,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이 사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누구구나!’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삶의 결론은 복음의 세계화구나!’ 복음은 무슨 복음? 그냥 예수만 믿게 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6-8절에 가면,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길고 긴 역사를 통해서 감추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복된 소리, 아닙니다. 복된 소리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 각국에 한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자기가 주장하고 배운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었었습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날에는’ 연합된 존재가 된 1호가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입니까? 순서를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단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차이점일 뿐이지, 먼저 된 자가 뭐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먼저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 안에 들어가면 다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기준이, 내용이, 삶이, 존재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너희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너희’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까? 누구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라고 할 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너희라고 할 때, 나냐? ‘나를 보고 너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아버지와 주님이 나하고 연합이 되셨는데, 여기 ‘나’는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된 가운

데 너희, ‘나’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주님도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 모태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모태에서 태어날 때 예수님을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지, 안 부를지 압니까? 세상에서 배운 대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아니 더 나은 환경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사인 장로님도 있고, 성가대 지휘자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나 성가대 지휘자 되겠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럼 오늘 성가대 지휘자가 되기까지 그 마음을, 이태리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따게 한 마음은 지휘자의 마음이었어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라는 것은 아버지와 주님과 나, 연합된 가운데 ‘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땅에서’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들에게도, 나에게도, 아들 된 존재들에게도 알려 주시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거룩 거룩’일 뿐입니다. ‘거룩’은 죄와 사망이 끝난 창조자의 존재가 된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와 어휘가, 다 ‘너희’라고 하는 상태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기준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느냐? 유대교, 유대인? 성경을 지켰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마 12:50)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입니까, 이미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주님과 연합된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이래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니’, 예수를 믿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

라고 부르고 있느냐?’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친 아버지라니’, 그것도 ‘임마누엘’, 우리와 주님과 나하고 같이 있는데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 맞아 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 아니요. 그것은 이미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주님과 한 마음이 됐을 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나옵니다. 흉내는 낼는지 모르지만, 모조품은 모조품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선교하러 간다.’ 그것은 내가 예수도 모르고 있을 때, 예수의 존재와 나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핏줄이다’, ‘하나님의 족속이다’, 뭐하기 위해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복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만드는데, 예수와 연합 됐을 때에 후사, 지체, 약속의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현재의 나는 과거의 육신으로 살았던 나, 주님을 만난 이래에 변화되었던 나, 지금의 나,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사역이었는데, 나도 그랬어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구나’. 아니요. ‘내가’, ‘너희가’가 점점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을, 사복음서 보라. 사복음서 보라.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각본이다 각본!’

그래서 그 각본을 따라서 하는데, 배우가 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요? 연극 영화과, 연예 관련 등등, 이런 것을 다 배워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내일 일을 알아요? 잘 모른다고 대답하겠죠. 아니요, 우리는 ‘내일 일’이 나와 있어요. 누구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마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너희가 아들인 고로’,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연합된 가운데 나,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아들입니다. ‘아들인 고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마음에 ‘하나님이 친아버지구나, 아빠 호 파테르(’Αββὰ ὁ πατήρ), 친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을 넣어주지 않으면, 배워서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 세상 나라가 끝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들의 연합된 존재를 만들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만든다.’ 성경은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사

건이 안 된 것을 전하는 사람과 자기 사건이 돼서 자기 사건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사역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새 피조물이 태어난 근원

-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 ‘예수와 연합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태어 났나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나더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만?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먼저 읽어 보세요. 예수님은 ‘나더러’ 할 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나는’ 할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요 10:30)

‘나 예수와 아버지는 한 존재이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누구는 누구누구와 한 몸이 된 사람이다?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나’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예수만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만 영접했다고만 가르쳐요. 왜? 살아계신 아버지와의 만남이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아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예수를 우리는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때리려고 합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너하고 같이 계신다고 얘기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자다. 나는 아브라함을 만든 존재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도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면 나 여호와가 저주한다.’ 오늘날 우리를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가, 연합된 존재입니까? 맞아요. 마귀 사탄과 연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이래에, 처음에 나도 주님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

셨으니”(고후 5:17-18)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의 존재는 지나갔으니 보라 주님과 연합된 존재였다.’ 주님과 연합된 것만 알았어요, 처음에 나도.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예수 안에 연합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모든 것’이 아니고 헬라어에서 ‘판타(πάντα)’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를? ‘예수와 연합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태어났나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은 누가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니까 네 종류가 나옵니다. 네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파트, 한 종류에 속한 사람만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서 난 자들이니라”(요 1:13)

그래서 ‘혈통으로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을 가진 사람이나, 육정, 그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 영접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고 예수만 믿는 그 과정은, 가룟 유다도 예수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론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전 성경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것이지 우리 모두, 몸 밖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다 같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때가 되니까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 친아버지이시구나!’

나는 주님을 만난 이래에, 놀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핏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놀랐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주었죠? 주님과 한 마음이 된 상태를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한 몸이 된 사건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연합된 존재,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입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입

니까? 창조주였습니다. 첫 사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신 분이고,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족보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 사탄의 족보를 둘 다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냐?’ 이것을 분석하는 상태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 통과 했다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요.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나, 뭐가 오나 염려 없다고요? 아닙니다. 시험이 오고 염려가 올 때는, 발가벗은 나만 나옵니다. 시험이 올 때, ‘야, 이제 끝나는가 보다.’ 할 때, 함께하는 주님과 아버지가 나의 본체가 되어 있는 것을 알도록 문젯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나니? ‘하나님께서로 태어난 자들이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나니’ 예수 안에 있는 것만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을 하면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는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9)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시사? 처음에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계속 머릿속에서 화면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구나’ 누가? ‘아버지가 같이 계신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하고 물어보면 하늘과 땅, 사방을 다 둘러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예수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17절은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것만 알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만 알았는데, 보니까 나보다 먼저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하셨던 요한복음 10장 30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 매일매일 점검할 삶의 근본 기준

-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내가 아버지와 연합된 상태로 살았는가?

‘세상을(코스모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행위입니까, 죄라는 존재였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예수만 믿는 것, 행위는 무조건 나타나는 죄만, 행위로 인한 죄만 말하는 팀이 있고, ‘아, 이 죄는 사망을 주장하는, 사탄의 마음이 존재가 돼서 마음에 있는 것이 죄구나’ 앞으로 죄라고 하는 문제도 여러분들과 다시 또 확증할 날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나하고 우리지, 1인칭 ‘나’와 모인 ‘우리’가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내가 전합니까?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이 주장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후 5:14-16)

그런데 ‘주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 믿는 ‘모든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모든 단어, 말씀 하나하나가 확증되어 두드러지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존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여러분들 ‘산 자와 죽은 자’하게 되면 지금도 의식 속에 뭐가 나와요? 죽은 자? ‘죽어서 장사지낸 사람이 죽은 자구나!’ 그렇게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사건을 모르고 믿어도 성경은 ‘죽은 자’라고 합니다. 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산 것을.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나는 뭐냐?’ 답이 안 나옵니다.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 주님뿐입니까? 주님과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를 살리신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그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 일주일간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 때문에 살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엄마 아빠하고 좋을 때는 좋은데, 자기들에게 조금만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오게 되면 ‘엄마아빠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아니하노라’, ‘살다가 썩어질 한 줌의 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변했구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육신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 우리 모두의 값어치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좇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을 왜 5천여 명이 따라갔다가 다 도망갔느냐? 칠병이어, 사천 명이 왜 왔다가 도망갔느냐? 가룟 유다가 왜 도망갔느냐? 왜 도망갔어요? ‘영생의 말씀을 주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데 오직 예수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더불어 연합된 존재가 되는 이 복음 때문에 사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주 하나님인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바로 그날,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늘 얘기 했습니다. ‘매일 매일을 저녁에 잠들기 전에 5분간이라도 하루를 정리해 보라’ 내가 살았느냐? 연합된 아들로 살았느냐? 산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았느냐?

오늘 여기 올 때도 교통수단을 통해서 왔습니다. 누가 운전하고 왔어요?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어요? 누가 왔어요? 연합된, 그날 연합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연합된 존재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을 자기 전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살았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내가 아버지와 연합된 상태로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가 TV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다 같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을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하
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된 내가 됐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입니다. 이것은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송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돼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지 ‘아, 나는 나쁜 일 안 할 거야’, ‘나는 도덕군자가 될 거야’.
아닙니다. 도덕군자도 안 됩니다. 행위만 자꾸 따집니다, 행위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연합된 존재가 성장하고 자기 모습을, 그래서 ‘늘 아침에 거울
을 보라’ 남자들은 면도하고 세수하죠? 여자들은 화장품을 바르죠? 화장품 중에 기본
바탕이 되게 바르는 것이 뭐라고요, 이름이? 파운데이션(foundation)이라고 하죠? 세
수할 때도 몰랐다가 파운데이션을 먼저 바르면서 누구 얼굴에다 바르고 왔어요, 오늘
도? 이거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화를 낸다면 내가 화를 냅니까, 주님과 함께 화를 내야 됩니까? 부부기간에 살면서도
‘당신 왜 그랬어, 왜 그래?’ 할 때 당신은 누구고, 말하는 자기는 누구냐고? 이것이
‘삶의 현실화가 얼마가 됐느냐’가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화를 내고 싶어도, 부부싸움을,
누구를? 미운 사람과 싸우려고 해 보세요. 그것이 ‘내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알고 나면, 싸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작정을 하고 ‘오늘은 한바탕 해
야 되겠다.’ 작정을 해 보세요. 그러면 싸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싸우기는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요? ‘아, 나는 싸우지 말아야 돼’ 아닙니다. ‘싸우는 것은 아버지의 아
들로서 존재가 합당치 않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주십시오. 이 싸움을 끝내 주십시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 싸워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했습니까? 왜 싸
우게 했습니까?’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화난 이유, 미운 이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아, 내가 보니까 누구는 거짓말쟁이고 누구는 악하고’ 그런데 ‘누구는 악하고’ 할 때
그 ‘악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뭐가 되느냐? 사탄이 주는 마음을 그대
로 현실화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왜 합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 얼
마나 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말인데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
님의 자녀들은 생각나게 하신 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한 말이 이게 인간적인
나를 위한 말을 했구나, 인간적인 욕심을 내게 했구나. 이것이 시험에 들은 것이구나’
이런 것을 자녀들만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욕신의 소욕
을 알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고친다. 나는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나는

누구나?’하는 이 문제가 항상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 같다고요? 항상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상태의 삶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 받은 나, 주 안에 있는 나,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이런 과정까지 현실화 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앞으로,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봐 봅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마 26:40)

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따지지 말고, 그냥 한 시간으로 따지자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존재화 해서 얼마나 계속 유지하고 살아요?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자다가 깨다가, 깨어 있는 것은 연합된 사건을 알고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려고 할 때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죽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에 올라가도 죽은 상태로 올라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오늘날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상 생각에 몰두해 가지고,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비교하고 판단하면, 한 시간인지 두 시간인지, 아니 24시간을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악한 자로부터 구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느냐, 나를 화가 나고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으로 돌아가게 만드느냐?

한 시 동안, 두 시간, 아닙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주님과 연합된 아버지 장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시간은 뭐냐? 자고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고 있는 시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으로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내 마음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사건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건을 알기를 원하는데, 혈과 육에 속했으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이,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나?’ 제자들이 부활을 이해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는 말입니다. 지구상에 죽음의 공포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한국말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들, 죽음에 이르는 공포는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하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

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내가'가 누구냐는 그 말입니다.

‘주님과 아버지와 연합된 나’라고 하는 이것이 답이 안 나오면, 다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잠 잔다’가 육신의 잠을 자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날 하루를 살았으면 그날 하루가 전부 죽은 날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전화기가 나오고 난 다음,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한 여자에게 올인 했습니다. ‘난 이 여자 아니면 죽는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움까지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며칠 안 돼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집에 자기가 올인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핸드폰이 있느냐?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하러 시집왔지? 아니 내가 당신 때문에 시집왔는데 당신 뭐 하고 다녀?’ 남자가 그때 ‘아차’하면 다행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는 부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가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하루를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니요. 24시간 매 분 매 초 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기 올 때도 갈 때도, 돈을 벌려고 세상에 나가 있어도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삶을 산다.’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면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은 전부 악한 자라고 합니다. 왜? 육신의 이익 때문에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난다, 왜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왜? 왜 만났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심지어 병든 것까지도 ‘내가 혼자 아프다. 나 죽겠다. 죽을 것 같아’ 점점 없어지는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주님과 나하고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아, 오늘은 누굴 만났는데, 내가 유익이 얼마나 생겼느냐?’ 세상 것 유익!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주님이 쓰는 단어 중에 아버지 앞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살고 죽는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누가 받은 것 입니까? 누가 받은 거예요? ‘아, 오늘 월급 탔다고, 내가 한 달 결산해 보니까 얼마 벌었다고’ 그 ‘내가’가 완전히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된 사건을 떠나서 ‘내가’가 나온다면, 그 상태를 매일 계속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해요? 기저귀 찬 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라고 하는 이것이 참 나쁜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이상하다고 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세상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기뻐하라’입니다. 기도를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는 때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전파를 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아직 듣고 있지 못한, 제일 마지막 한 사람이 올지라도, 그는 불변의 존재,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주님과 연합된 나를 모르고 믿을 때, 예수를 믿어도 악한 자입니다. 왜?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같이 계신다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니요. 몰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할 때, ‘악한 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시편 33편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시 33:15)

‘저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며, 거기에 내 마음도 지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 연합된 사건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나한테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삶으로 누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안 걸리면 이상한 거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조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후손을 만들어 오셨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었다고 했죠? 우리 마음도 계속 넣었다 뺐다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 한번 봐 봅시다.

“말씀이 길 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막 4:15)

‘말씀이 길 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씨가 마음에 떨어졌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 빼앗아 간다고요? 누가복음 8장 12절, ‘사탄’이 아니고 무엇도 나옵니까?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눅 8:12)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씨가 마음에 떨어진 사람이다.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렇죠? 마귀 사탄이요, 바로 우리 마음을 드나들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면 우리 마음을 얼마든지 들락거릴 수 있어

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생각은 아버지가 주시지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렇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파는 마음은 안 줍니까?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내가’가 돼서 그 ‘내가’ 원하는 무엇 때문에 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팔아먹으면 괜찮은데 아버지와 주님의 존재까지 팔아먹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주님이 ‘나’라고 하는 단어, ‘나는’, 할 때, 항상 연합된 상태에서 ‘나’는, 우리도 ‘나’, 내가 하루를 살았을 때, 연합된 상태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연합된 상태를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았느냐!

❖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 항상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건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난 자라고요? 육신의 부모 있어요. 육신의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썩을 육신 속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몰랐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만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까지 깨달아지면…. 연합된 사건을 잊어버리는 동안 나는 시험에 들었고 악한 자에게 팔려 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나 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날에는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인 것 같이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연합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 날, 이것은 바로 삶으로 적용 될 때 그 날입니다.

우리 만나면 다들 그래요. ‘아, 목사님 한국에 계시면 얼마나 좋으냐고’ 연합된 사건이 현실화 되게 되면, 그런 말을 하다가도, ‘그렇지, 나하고 함께 계시는 분이 임 목사님 하고 같이 계시고, 나하고도 같이 계시지’. 그냥 계속 한국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나와 함께 하는 아버지와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똑같은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도 가는 것이지, 그냥 말씀이 좋으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할 말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마음을 운동력을 가지고 살게 할 때, 지난 한 주간의 삶, 매시간 시간마다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을 감당할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항상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늘 구해주시옵소서’ 왜? 마귀 사탄은 우리 주위에 돌아다니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뽑아내면 그만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오지 않습니다. 악한 자도, 잠언 16장 3절-4절 보고 끝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잠 16:3-4)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악인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오고 있는 문제 때문에 바람을 느끼지 말고, 그 바람이 왜 나한테 불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지, 악한 자들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미국에서도 전화가 왔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 걱정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주시고, 열두 제자 중에 하나만 악한 자지만,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악한 자가 누구인지, 분별이 되게 해서 그들이 뭐라고 할 때, 인간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지난 5월, 다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라’, 주님과 아버지와 연합된 상태에서 보면 악한 자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한 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이러한 삶이 다음 한 주 동안 계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